

Atmosphere VI.

마음이 단련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1. 아돌람의 시작

다윗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이다. 창세기 1:28절에 기록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생육, 번성, 정복, 충만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나라이다.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윗의 왕국에는 천국과 같이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 했으며,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왕을 사랑했다. 다윗은 보잘 것 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 예수님 또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지극히 평범한 변방의 목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연호 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했던 다윗 왕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당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힘차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높였다.

위대한 다윗 왕이 다스리는 왕국의 시작은 예상과는 달리 ‘아돌람’ 이라는 곳이었다. 아돌람은 어떤 곳인가? 적어도 강력한 국가를 세울 공동체로 시작되려면 가장 능력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돌람으로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 보낸 사람은 그런 탁월한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말씀을 보니 그들은 ‘환난 당한 모든 자, 빛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들이었다.

[사무엘상 22:1-2]

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들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역시 아돌람으로 도망을 온 상태였다. 다윗의 마음은 도망자였기 때문에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힘든 정도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에 자신의 가족 모두를 짊어지도록 했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더 얹으셨다.

다윗이 매일 듣는 소리는 소망과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소리를 매일 들었을 것이다. 바로 이 모습이 다윗 나라의 시작이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2. 예수님의 시작 - 산상수훈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능력있고 힘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작과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의 복’ 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 하셨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어렵고 불쌍한 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복’을 ‘팔복’으로 말씀해주셨다. 다윗, 예수님 모두 시작은 ‘아돌람’ 이었다.

3. 하나님 나라의 기초 - 아돌람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돌람을 허락하시는지 질문해야 한다. 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고통 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아돌람’ 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4. 하나님이 허락한 아달람굴은 다윗이 처한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아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달람과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다. 예수님도 외부적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달람굴 같은 백성들의 '마음'에 팔복을 말씀 하셨다. 예수님은 아달람굴과 같은 상황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정한 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아달람'을 해결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다윗이 아달람굴의 문제를 돌파하고 그 기초 위에 강력한 왕국의 확장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반드시 아달람의 문제를 해결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한다.

(1) 아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이다.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온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안에 아달람굴을 조성하신다. 아달람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는 가장 강력한 트레이닝의 장소이다.

(2) 아달람굴에서 느낀 마음의 무게는 실제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다윗은 아달람에서 고통과 절망의 무게를 실제로 느꼈을 것이다. 다윗의 마음은 그 무게감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들어 올릴수록 점점 그 무게가 가벼워지며, 이제 더한 무게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마음의 짐이 해결된다는 의미는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의 무게감의 감소를 말한다.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을 말한다. 즉, 마음안에 무거운 무게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무게를 마음에 짊어지셨다. 겿세마네 기도의 고민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 또한 인류 죄악의 무게로 무거워지셨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마음으로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신 것이다.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모든 무거운 짐이 가장 가벼운 상태로 들어올려진 곳이다. 잘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로 들어올리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안에 더 이상 그 문제는 고통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게감을 극복하셨기 때문이다.

아달람은 십자가와 같은 곳이다. 다윗은 아달람의 고통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해서 들어올리셨다. 다윗의 마음이 더 이상 고통의 문제를 고통으로 여기는 단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아달람은 외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마음(내면)은 힘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며, 힘의 무의함을 보는 곳이다.

다윗이 아달람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상처입은 아달람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사역을 했을 것이다. 억울함이 있던 자들에게 회복을, 절망과 낙망에 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미움과 증오의 장소에서 사랑을 경험하며, 어두움의 장소에서 빛을 경험하며, 억울함의 장소에서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안에 아달람을 허락하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긍휼, 기쁨, 용서, 사랑,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이다. 아달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겸손과, 용서를 배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힘의 토대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 위에서 확장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존중과,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마음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팔복의 마음을 아달람과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이 때가 마음의 근육이 생겨난 상태이다. 이 사람은 어떤 아달람굴의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다. 피하지 않는다. 도전해서 들어 올리고 마는 사람이 된다.

(4) 힘의 원리 - 외적인 힘은 육신을 움직일 수 있으나 마음은 움직일 수 없다.

힘으로 내면을 다스리려고 하면 거대한 충돌이 일어난다. 육신은 힘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욕심과 정욕은 힘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 안에서 움직인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랑이 없는 은사와 능력은 다 소용이 없는 것' 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5. 적용

(1) 아달람의 상황을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내면으로부터 외적인 고난의 환경을 먼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한다. 받아들이면 공기는 빨리 변한다. 만약 다윗이 억울해 했다면 아달람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 억울함, 자책감을 경계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하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함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다. 억울함, 분노의 힘은 영적인 힘이 아니다. 힘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 억울함과 분노로부터 오는 힘의 결과는 반드시 패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힘의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받아들일 때, 마음을 단단히 먹을 때, 아달람은 정리되고 빨리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모든 아달람의 상황이 내면에서 정리될 때, 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난다.

마음에서 해결될 때 외적인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권위가 임할 때까지 훈련해야 한다.